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1. 30.(수) 06:00 < 11.30.(수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9. (화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수 (044-203-5653)

통상차관보,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

- 한-중남미 수교 60주년 맞아, 통상·핵심광물·신산업 등 협력 확대 논의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 **정대진 통상차관보**는 **한-중남미 수교 60주년 계기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**에 참석하여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칠레, 페루 등 1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**한-중남미간 우호·협력관계 발전을 평가**하고, 다양한 분야에서 **향후 협력 확대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* '22년 수교 60주년: 멕시코, 니카라과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온두라스, 칠레, 도미니카공화국, 파라과이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아이티, 파나마, 에콰도르, 자메이카, 과테말라(15개국)

【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개요 】

◇ **(일시 / 장소)** '22.11.30.(수) / 서울 플라자호텔

◇ **(참석) (韓)** 산업부 통상차관보, 미주통상과장, 한중남미협회 회장 등
(중남미) 브라질, 아르헨, 칠레 등 14개국(대사·대사대리 참석은 11개국)

◇ **(주요 논의사항)** 통상협정 진전, 핵심광물·수소 등 에너지 협력, 신산업 협력 등

□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**한-중남미간 정치, 경제,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**에서 **우호·협력관계가 구축**되어 왔다고 언급하고,

○ 특히 지난 30여년간 **교역규모가 18배 이상 증가***하고, **섬유, 전자, 자동차 등 산업분야**에서 중남미 전역에 대한 **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**되는 등 **한-중남미간 경제협력관계가 강화**되어 왔음을 평가하였다.

* 한-중남미 교역액(억불) : 30 ('88) → 114 ('95) → 127 ('00) → 220 ('05) → 508 ('10) → 452 ('17) → 466 ('19) → 542 ('21)

○ 또한 코로나19 팬데믹, 공급망 불안정성, 기후위기 등 **변화하는 경제·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간 경제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**해지고 있으며, 특히 **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** 등이 중남미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

□ 정 차관보**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15개국을 포함**하여 **중남미 전체 국가들과 향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**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, 다음의 **세 가지 방향**을 언급하였다.

❶ 한-중남미간 교역·투자 확대의 기반에는 중남미 주요국과의 성공적인 FTA가 있었음을 고려, **상호 호혜적 이익**에 기반한 **경제협력 플랫폼**으로서 **對중남미 통상협정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**하고,

* 기체결 FTA : 한-칠레 FTA('04년), 한-페루 FTA('11년), 한-콜롬비아 FTA('16년), 한-중미 5개국 FTA('21.3월 전체발효)

❷ 리튬, 니켈 등 **핵심광물 공급망***, **수소·재생에너지**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 등 **양측의 강점을 결합**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,

* (핵심광물 협력사례)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염호 프로젝트('22.3월 착공), '22.10월 한-칠레 핵심광물 밸류체인 협력 MOU 체결(한덕수 총리 순방 계기) 등

❸ 미주개발은행(IDB),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등 미주지역 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과의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, **에너지·인프라 등 분야**에서도 **중남미 각국의 수요에 맞는 협력**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

□ 끝으로,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**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관심과 지지**를 요청하고,

○ 한국은 **전쟁, 빈곤 등을 극복**하고 **경제성장에 성공한 경험**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가들을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며, 2030 부산엑스포가 **한-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모멘텀**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